

일본의 국제 대응체계의 변화

(관방 국제부의 신설)

역/장명국/ITU국

1. 관방 국제부 신설의 배경

국제사회에서의 냉전 종식과 더불어 신세계 질서가 재편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 우정성 대신관방에 지난 6월 23일자로 국제부가 신설되었으며, 그 설립 배경은 다음의 3가지 요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미 작년 7월 제출된 제3차 행정개혁심의회 제1차 회신중 각 부처의 대외 대응력 강화 및 대외 정책 부문의 충실을 기하고, 강화해 나가자는 제언에 따라 신설하게 되었다.

가. 최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정보서비스의 국제화 등 정보화시대로의 진전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통신, 물류, 금융 같은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중요성은 매년 증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국제적 조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MPT는 전기통신주관청으로써, 우정사업의 운영주체로서 국제적 역할의 필요성이 지난 수년간 급속히 증대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더더욱 필요케 되었다.

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소 냉전구조의 붕괴,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전과 같은 급격한 국제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MPT로서도 일본정부의 한 부서로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받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전

기통신, 방송, 우편 시스템의 개발 및 설치 운영에 있어 낙후된 상태이며, 특히 구소련 및 동유럽은 시장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서두르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므로 일본의 국제협력에서의 양적팽창 및 질적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지구환경 문제 등 범 세계적 규모의 문제해결 방식을 요청 받고있는 실정이다.

2. 종래의 우정성 조직의 문제점

국제문제들은 점점 더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데, 종래의 우정성 조직을 볼때엔 국제경제마찰, 국제기구, 국제협력 등 개별영역을 구축하여 전기통신사업, 우정사업 등 사업분야별로 각 부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즉, 종전에는 우정성의 조직관장상 관방 국제과는 국제경제마찰 및 관련사항, 통신정책국 국제기획과는 ITU, INTELSAT, INMARSAT를, 우주국 국제과와 저금국 국제실은 UPU를, 통신정책국 국제협력과는 국제협력 등을 개별적 차원에서 대응해 왔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정성이 국제문제들을 종합적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서비스 무역협정체결이 주요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이가운데 전기통신 뿐 아니라, 우편, 금융분야에서의

우정성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종전조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다.

3. 관방 국제부의 구성

따라서 우정성은 그같은 조직상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관방국제부를 신설, 종전 국제 문제를 담당하는 부문을 통합하여 아래표와 같이 3과 2실로 구성하였다.

국제정책과는 우정성의 국제정책전체를 검토·입안하여 대외적으로 우정성의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하며, 필요시 국제 관계 사무를 조정·수행한다.

국제 기구과는 ITU 및 UPU 같은 국제기구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과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전기통신·방송분야, 우정사업분야를 포함한 국제협력 문제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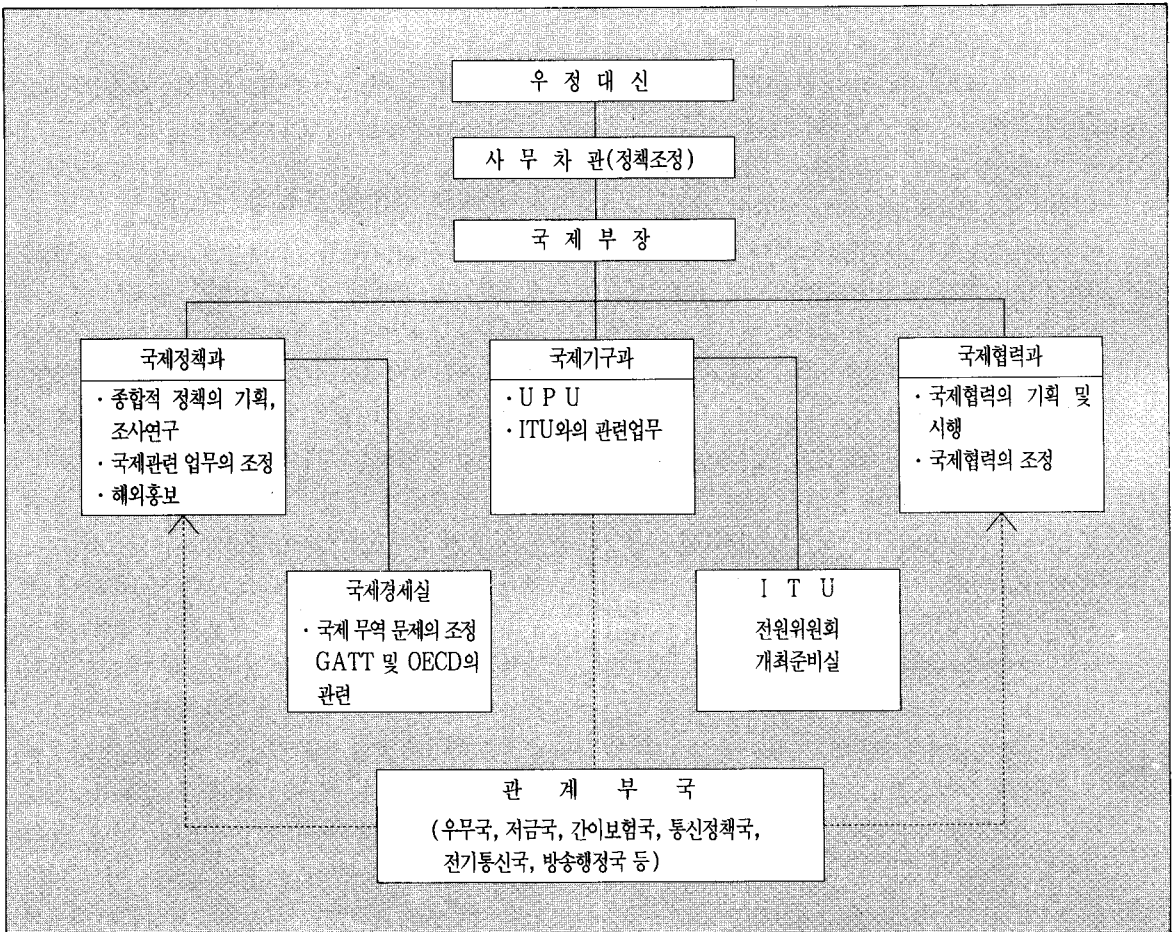
국제정책과의 국제경제실은 주로 무역 마찰문제를 다루며 국제기구과의 ITU 전권위원회 준비실은 199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위원회의 개최준비를 주업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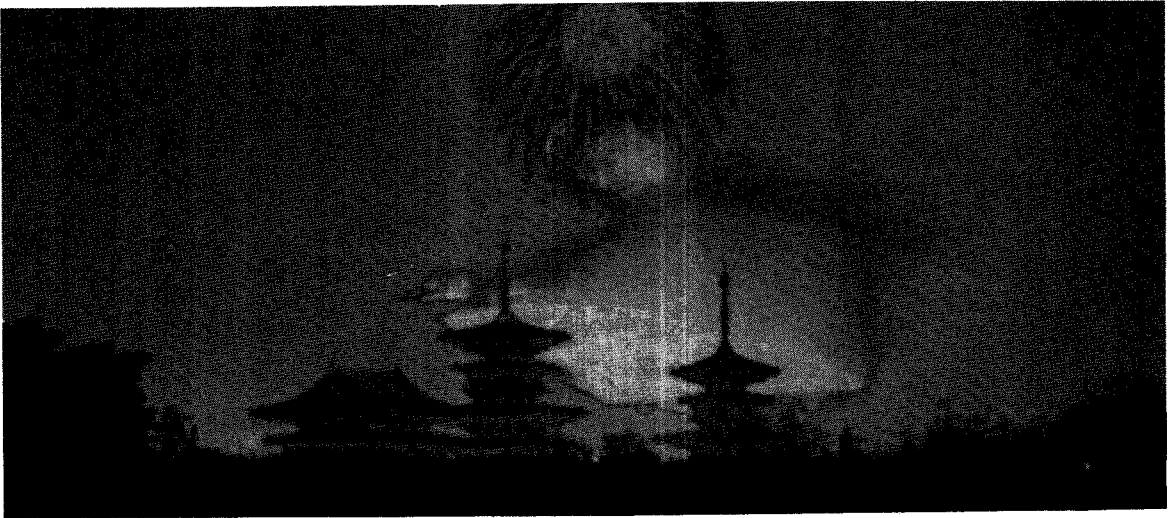
상기 조직들은 정책조정 사무차관과 국제부장관할하에 움직인다.

4. 향후 과제

금후 상기조직의 국제업무 대응으로 MPT의 국제관계업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정확한 대외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다.

국제부 신설에 따라 많은 중요 과제들이 뒤따





를 것이며 그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신국제질서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기여
국제경제분야에서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진전, 구소련방·동구권의 GATT 및 IMF가입 등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전기통신분야로 국한 시키더라도 비INTELAT 위성시스템의 출현, 방송의 비국경화등의 도입으로 이분야 신질서가 이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나. 국제기구의 대응

통신분야의 국제전문기구인 ITU, UPU의 계속적인 적절한 대응은 물론 GATT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경제 무역 분야의 국제기구와도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따라서 MPT는 더욱더 충실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양국간 전기통신·우정분야에서의 정기회의 개최

우정성은 현재 7개국 및 EC와 매년 전기통신 우정분야에서의 쌍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및 한국)

양국간의 정기협의를 개최하므로서 양국의 전기통신 정책, 우편정책 및 각종기술문제 등 전반적인 국제적인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대상국의 확대 및 내용의 충실을 기하여야 하겠다.

라. 국제 표준화의 추진

세계 각국에서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향후 국제적 경쟁이 더욱 드세지고, 여러 통신사업자의 단일 세계 통신망 실현이 이상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 표준은 이용자, 사업자, 제조업자에게 더욱더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ITU를 중심으로 통신선진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적극적 기여가 있어야겠다.

마. 국제공헌의 충실화

개발도상국의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하부구조인 통신 개발 및 구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통신 시스템의 정비지원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겠다.

또한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 우정사업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하겠다.